

뇌와 마음의 근본의 치료,  
회개와 휴거의 역사

작성일 : 2013년 8월 10일 새벽기도

작성자 : 황인선

(수련회 말씀으로 교회 캠퍼스와 함께 말씀 QT를 하  
던 중

선연히 깨달아지기를 “뇌 치료는 회개의 완성이다.”  
라는

감동이 들었고 이를 두고 성자와 대화하였습니다.)

\* 성자의 말씀 \*

(뇌 치료는 회개의 완성이라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이에 대해 더 말씀해 주세요.)

뇌의 치료는

곧 병든 것을 제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뇌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이전과는 다른

부활된 형태를 갖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많은 자들이 그러하듯이 마음은 앞서지만

그 육신이 따라주지 못해

넘어지고 포기하며 낙심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너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너의 실수로 너를 탓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괴롭게 보냈느냐.

이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며,

휴거의 말씀이다.

자, 들어 보아라.

무엇이 근본인지 깨닫는 자가

말씀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와 선생은 계획적으로

뇌 치료 기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섭리사 많은 자들이

휴거를 앞에 두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왜 포기하느냐.

그것은 각자 실력이 안 되고

스스로 잘못하여 죄에 빠졌고

또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너희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선생과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 기회가 바로 뇌 치료 말씀이다.

너희를 용서하는 말씀이다.

뇌 치료 마음 치료는

곧 너희 스스로 넘어진바 되었던라도

한 번 더 일으켜 주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준다는 것이다.

이 때 마지막으로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말씀 듣고 행하는 자와

그럼에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자.

더 이상은 선생도 나도 손쓸 방법이 없다.

뇌의 근본 된 치료에 대해

가르쳐 줄게.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다만 그 기억은 극히 주관적이다.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함한 기억이다.

그러니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100% 주관적인 기억이다.

같은 상황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듯이 그러하다.

인생들은 각 개인의 삶을 살고

개인의 휴거를 이룬다.

뇌의 근본 된 치료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

뇌의 치료는

곧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뇌는 휴거의 마지막 열쇠이며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뇌에 대해

밝히 이르는 것은 진정 마지막이다.

휴거를 원하느냐.

뇌를 치료하자.

너의 치료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주관적인 기억을  
객관적인 기억으로 바꾸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  
이것저것 기억을 따져 보며  
스스로를 변호하라는 것이다.  
너희를 탓하지 않고  
너희 뇌를 탓하고  
너희 마음을 편들어 준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용서냐.  
회개의 답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정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탄과 마귀로부터 벗어나자.  
죄 없이는 그들과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읽어 보아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  
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  
게 하시느니라)

깨달았느냐.  
이것이 회개의 의미이다.  
이제는 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며  
너의 완전한 치료다.  
지금 이 역사의 때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마지막 역사다.  
복음이 살아 있다 함은  
아직 너희 곁에 선생이 있다 함이요,  
그 말씀을 진정 실천하는  
너희가 있다 함이다.  
말씀이 문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살아 있을 때

이 역사는 완성될 것이다.  
기억하여라.  
복음이 살아 있는 역사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다.  
회개는 기회다.  
마지막 자신의 때를 놓치기 전 주는  
마지막 기회다.  
죄를 인정하기가 고통스러우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냐.  
너의 구원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중시하며 살아간다.  
그렇게도 조심하라 한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생각이다.  
그것은 곧 판단함이며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다.  
모든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죽지 말고 살라 함이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  
다음은 없다.  
절대 파멸이다.  
스스로 머리가 되면  
또 실수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더는 일으켜 줄 시간도 없다.  
스스로 머리 된 자는  
속히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제는 행실로 회개하라 하셨지요, 행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 한 것이다.  
누가 편지로는 회개하지 못하고  
말로만 못하겠느냐.  
회개는 돌이켜 깨닫는 것이다.  
다시는 그와 같지 않은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죄가 무서워 고하는 데서 그치니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것이 어찌 회개라 하겠느냐.  
기성의 신앙이지,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아.  
회개하여라.  
돌이켜 거듭나라.  
다시는 그와 같지 말아라.  
이것이 진정 회개다.

안녕.

(뇌 치료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작정하고 죄를 안 짓는 치료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수련회를 기점으로  
많은 자들이 조건을 시작하였다.  
늘 말하였지만  
처음은 누구나 불꽃같이 활활 타오른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자가 드물다.  
이번 말씀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자가  
주인이 될 것이다.  
핵심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노력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힘들어도 포기는 말자.  
시대를 만났는데  
왜 그리 어려워하느냐.  
너는 포기하여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 극적인 기회의 때다.  
자기를 완성하는 기회의 때다.  
뇌 치료의 근본의 목적은  
회개의 완성이며  
너희의 휴거다.  
뇌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랑하니  
그 그릇이 깨끗해야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듣는 것이다.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을 부어 주어도  
마시지 못한다.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알았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하자.